새것 같은 중고 '리퍼브' 기기 뜬다

〈refurb〉

IT·가전품 등 수리 거쳐 신제품과 별차이 없어

최고 50% 저렴 인터넷 리퍼브숍 알뜰족에 인기

직장인 최모(36)씨는 최근 노트북을 사기 위해 광주 서구 금호전자랜드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생각했던 성능의 노트북 가격이 고가여서 부담스러운 가격에 구입결정이 힘들었다. 이후 최씨는 우연히 친구 소개로 가격이 싼 '리퍼브'(Refurbished) 제품을 알게 됐고, 같은 모델을 20여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최씨는 "중고제품이라지만 막상 구입해보니 새것과 거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중고가전제품이 알뜰한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터넷에는 전문 '리퍼브숍'까지 생겼을 정도인 리퍼브 제품들은 새 제품에 비해 최고 10~50%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 리퍼브 제품은 제작 공정 중 미세한 흠집이 있거나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다시 손질해 내놓는 것으로 업체들은 보통 '리퍼'로 부른다.

'아이폰'의 A/S 정책이 리퍼브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처럼 중고라 하더라도 업체의 수리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새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

리퍼브제품을 취급하는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올 상반기 리퍼브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리퍼브 제품은 주로 노트북과 전자사전, 게임기 등 IT 기기를 포함, 가전제품까지 영역도 확장 추세다. 실제 옥션에서 상시 진행되는 휴렛팩커드(HP) 리퍼 제품 기획전에서는 미니노트북 등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15.6인치 제품인 'G62-464TX' 는 정가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한 67만원에, 또 130만원에 판매되는 'DV3-4006TX'(13인치)는 80만원 중반에 팔렸다.

리퍼브 제품 전문 쇼핑몰인 '리퍼브샵'(www.refurbshop.co.kr)에서도 한 대형양판점에서 팔리는 TG의 한 노트북의 가격은 119만원인 반면, 77만9000원에 가격이 매겨져 있었고, 4만원대 후반이 정상가인 리홈 선풍기가 3만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팔렸다.

옥션 관계자는 "IT기기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과 새내기 주부들이 리퍼브 제품의 주력 고객"이라며 "구입한 후 중고가가 크게 하락하는 전자기기 특성상, 처음부터 저렴하게 중고를 구입하는 알뜰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제품이다 보니 구매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한 것은 사실. 리퍼브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믿을만한 곳인지,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한다. 특히 중고제품을 구입 후 다시 반품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서 구입 전에 구입 목적과 맞는지 꼼꼼히 제품 설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은행권, 고졸 채용 바람

光銀 지난해 4명 이어 내년 하반기 10명 예정

기업銀 40명 최다·국민銀 8명 등 채용 확산세

10여년동안 자취를 감췄던 은행권 고졸 출신 행원들 채용바람이 불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명문 상고 출신들이 라면 은행권 취업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에서는 고졸 출신 20~30대 행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은행권에서 고졸 출신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다. 광주은행도 지난 1991년을 마지막으로 고졸행원의 맥이 끊겼다.

18일 광주은행 등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외환위기 전후로 구조조정과 신규 행원 선발을 꺼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대졸은 물론 고졸 출신 채용도 거의 하지 않았고 광주은행도 2010년 처음 특채로 고졸행원을 뽑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가 변하고 있다. 최근 고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권 채용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는 것.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에 은행권 최초로 총 4명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 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에 채용된 이들은 고교 시절부터 IT관련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던 학생들로 본점 내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텔러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졸 출신으로 5명 안팎을 채웠다. 국민은행은 12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지난 4월 8명을 채용했다.

국내 은행권 중 고졸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 창구 텔러 공개 모집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했다. 하반기에도 4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OB골든라거' 5천만병 돌파

오비맥주는 지난 3월24일 출시한 OB골든라거가 지난 15일 기준 5043만병을 판매, 출시 113일 만에 5000만병(330㎖ 기준) 판매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약 3800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성인 1인당 OB골든라거를 1병 반 이상씩 마신 셈이다. 오비맥주는 OB골든라거 5000만병 판매 돌파를 기념, 이달 말부터 일반 업소에서 OB골든라거 1병을 팔 때마다 일정액을 적립해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하는 고객사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장인수 영업총괄 부사장은 "OB골든라거는 깊이가 다른 풍부한 맛과 'OB'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시장안착에 성공했다"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대표 브랜드 '카스'와 함께 오비맥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눈이 즐거운 아이폰 케이스 18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생활 행사장에서 100% 면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알록달록한 색의 아이패드·아이폰 케이스는 여름철 눈에 띄는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 새얼굴

"中企 집중 지원해 고용창출 앞장"

김광서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수출·녹색성장부문 기업과 설비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8일 취임한 김광서(54) 신임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올해 호남지역의 수출·녹색기업 등 미래성장동력확충부문 중소기업에 1조원, 설비투자 중소기업에 24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집중지원해 고용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본부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서강대경제대학원을 졸업한 후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와 감사실을 거쳐 업무지원부장, 동대문지점장 및 CS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5만원권 급증

올 1조3849억원 발행…전년보다 21.8% 늘어

광주·전남 지역의 화폐 발행액 가운데 올 상반기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11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 지역 화폐수급 동향'을 보면 화폐발행액은 1조38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2476억원) 증가했다. 환수액은 1조34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3%(1687억원) 증가해 환수초과(-434억원)에서 355억원의 발행 초과로 전환했다.

5만원권 발행은 6068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245억5000만원보다 42.9%(1823억3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5만원권 수급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만원권은 5만원권으로의 대체를 반영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발행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전년 같은 기간(37.3%)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총환수액에서는 여전히 1만원권이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82.7%)보다 많이 줄어드는 등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주화는 발행 37억원, 환수 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0%, 124.4% 증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관세철폐에 콧대 꺾은 명품

샤넬 등 '한-EU FTA' 따라 가격 인하키로

프랑스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 샤넬이 에르메스에 이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

샤넬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철폐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는 유럽산 의류(13%)와 구두(13%), 가죽가방(8%)에 부과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샤넬의 대표적 상품인 '클래식 캐비어' 미디엄 사이즈는 579만원에서 562만원(3%)으로, '2.55 빈티지' 미디엄 사이즈는 639만원에서 620만원(3%)으로 각각 내릴 예정이다.

샤넬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 인하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에르메스도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분을 반영해 지난 15일부터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5.6% 인하했다.

대상은 열쇠고리와 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류를 제외한 잡화, 신발, 의류 등으로, 에르메스의 베스트셀러 상품인 '버킨25' 핸드백의 경우 가격이 1236만원에서 1199만원(3%)으로, '캘리 35'는 988만원에서 929만원(6%)으로 각각 내려갔다.

/연합뉴스